# 圖書館과 더부러

朴 熙 永

내가 圖書館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1947年 봄이니까 今年 봄으로서 滿 28年이 된다. 그리고 1945年 解放以後 司書라는 職名을 갖이고 圖書館과 함께 滿 20年을 살어 왔다.

내가 알고 있는 그間의 圖書館界의 뒷 이야기를 이것 저것 생각나는 대로 順序없이 回顧談으로 쓰고저 한다.

### 國立圖書館 看板

우리 民族이 日帝로 부터 解放 되던 바로 그날 나는 徵兵이란 이름으로 日本 新潟란 곳에 끌여 가서 있었다. 내가 日本으로 부터 돌아 온 것이 8月 23日이었는데 朴奉石 先生任으로 부터 만나자는 連絡을 받고 지금의 明洞 警察官派出所 近處에 있었던 中國 호떡집에서 만난 것이 8月 25日이었다. 解放 直後 當時의 社會相의 一面으로 各種 團體가 雨後竹筍格으로 生겨서 大路邊의 建物들은 거의 한집 건너 團體의 看板이 걸여 있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않일 程度로 많이 組織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그 어느 團體인가에 加入하여 있었던 때이여서 朴先生은 나에게 이러한 風潮에 휩쓸이지 말라고 타일르시고 우리들은 圖書館建設에만 專心하자고 하시었다. 朴先生은 圖書館建設의 必要性과 韓國圖書館界의 앞날에 對한 構想과 展望과 方向과 方法을 力說하시고 함께 일하자고 懇曲히 勸하시었다. 그것도 호떡 몇개를 앞에 놓고서 한 이야기었던 것을 생각하니 더욱 追憶된다.

地方文化發展을 爲하여 일하시겠다고 1944年에 大邱로 가 게시던 李在郁 先生任을 指導者로서 모시자고 定하고 不便하였던 交通事情을 무릅쓰고 職員을 四次에 걸쳐 大邱로 出張케 하여 비로서 李先生을 모셔 오게 되었다. 한편 解放以前 國立圖書館에서 勤務하였던 분들을 糾合하기로 定하고 連絡을 取하였다. 그래서 한분 한분 찾아 오게 되면 朴先生은 그분들에게 圖書館建設을 力說하시고 손 잡고 일하기를 勸하였다. 그런 대로 人員이 몽였다. 館長, 副館長, 課長 制度의 職制를 갖게 되고 館長에 李在郁先生任을 副館長에 朴奉石 先生任이 任命되었고 各課別로 人員을 整備하면서 일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疎開라는 이름으로 書庫一層에 쌓올린 圖書를 도로 書架 제자리에 排列하였고 開城驛 뒤 運送會社倉庫에 疎開하였던 古書도 뒤 찾아 왔다. 9月 25日인가 軍政廳으로 부터 國立圖書館이란 名稱의 機關으로 承認을 받었고 10月 5日인가 "國立圖書館"이 看板을 걸고 開館하게 되었다. 나의 記憶으로는 當時 "國立"이란 名稱을 使用한 機關으로는 國立圖書館이 最初인 것으로 알고 있다.

### 文獻蒐集隊

解放直後 朴奉石 先生任은 每日 建國準備委員會에 드나드시더니 軍政이 되자 每日 軍政廳에 드나 드셨다. 朴先生은 무엇 보다도 急先務가 文獻을 蒐集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몇 사람으로 하여금 廣木으로 腕章을 만들어서 먹으로 "文獻蒐集隊"라고 쓰고 圖章이 없으니까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란 큼직한 鐵藏書印을 捺印한 腕章을 팔에 끼고 거리로 나서게 하시었다. 圖書館員이 차차로 모이자 朴先生은 나에게 收書課長이란 職責을 맡기시고 文獻 蒐集의 責任을 맡기시었다.

當時에는 모든 出版物이 모다 街頭에서만 販賣되었다. 甚至於는 新聞까지도 配達되지 않고 街頭에서 사서 보게 되어 있었다. 國立圖書館은 돈을 드리지 않고 出版物을 蒐集하고저 했다. 即 되도록 寄贈을 받도록 하였던 것이었다.

一日分의 新聞을 모을야면 新聞이 여러 種類가 發行되었으니까 東西南北으로 一一히 新聞社를 찾아 다니며 寄贈을 받어야 하였다. 雜誌가 대개 一·二號로 끝이고 마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찾아 다녀야 할 雜誌社의 數爻는 反對로 많었다. 雜誌나 單行本을 蒐集할야면 街頭에서나 書店에서 그 雜誌나 圖書의 發行處, 出版處의 住所를 알아서 一一히 찾아 다니며 寄贈을 依賴하여 이를 받었는데 萬一 寄贈이 不如意할 때는 不得已 購入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부터 저녁때까지 거리를 헤매고 집을 찾아 다니는 일이 한 동안 繼續되었다.

朴先生은 滿洲國이 建國될 때 滿洲의 國立圖書館은 當時의 삐라, 포스터 其他의 印刷物 等을 蒐集하여 所謂 滿洲建國資料를 蒐集保管하였다고 하시며 우리도 政黨·社會團體들이 每日 數차례式 거리에 뿌리고 벽에 붙이는 삐라 포스터를 한장도 빼지 말고 蒐集하라는 指示를 하시었기 때문에 文獻을 蒐集하는 한편 各

政黨·社會團體를 찾아 다니며 달라고 하였고 또 거리에서 줍고 甚至於는 우리가 없는 포스터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물을 칠해서 떼어 오기도 하였으므로 때로는 反對黨인 줄 誤認받기도 하였다. 交通이 不便하였던 當時임으로 하루에 몇十里를 걸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年少하였을 때이기에? 하고 追憶된다.

### 女子職員

軍政廳 文敎部敎化局社會敎育課 美國人 顧問이 말하기를 圖書館의 司書職은 女子가 適格인데 어째서 國立圖書館에는 女子職員이 없느냐고 하면서 女子職員을 많이 採用할 것을 條件으로 해서 人件費의 增額을 約束했다고 朴奉石 先生任은 말하시며 女子職員의 採用廣告를 내고 試驗을 實施하여 一時에 十名의 女子職員이 採用되었다. 그리하여 各課에 一名式 配置되었는데 그後 文敎部 美國人 顧問官이 찾아와서 女子職員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자랑하듯 말한 일이 있었다.

### 顧 問 官

軍政廳에 다녀 나오신 朴奉石 先生任이 文敎部에서 軍政下 各機關에는 모다 美國人 顧問官이 配置되어 있다. 國立圖書館에도 顧問官을 配置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相議를 하자고 하시기에 우리의 힘이 不足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힘으로 圖書館하나 建設못하겠는가 그러니 받지 말자고 議論이 되어 朴先生이 다시 文敎部에 가서 不必要하다고 말하시어 끝까지 國立圖書館에는 顧問官이 配置되지 않았다. 이것이 結果에 있어 좋았는지 또는 나뻤는지 지금까지도 그 잘 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 顧問官이 圖書館學을 專攻한 사람이 配置되었었더라면 國立圖書館과 아울러 나아가서 韓國의 圖書館界의 樣相이 달랐을 것이 않일까 하는 생각과 또한 萬一 그렇지 않고 反對의 境遇였더라면 法律圖書移管問題와 같은 問題가 있었을지도 몰른다는 생각이 交叉되는 것이다. 如何間 잘되었든 못되었든 國立圖書館은 顧問官없이 純全히 우리의 손으로 매만져 살어온 것이다.

### 解放 一週年記念

解放 一週年을 記念하여 國立圖書館은 記念行事의 하나로 國立圖書館展示室에서 一年間 熱心히 蒐集한 出版物 印刷物을 展示하였다. 6.25後 알아보니 그렇게 苦生하여 蒐集하였던 삐라·포스터類가 6.25때 없어졌다고 하니 아까운 마음 둘 곳 없다.

解放된지 一年이 가까워 지면서 나는 따로히 "解放以後一年間國內主要日誌"를 編하였다. 活版印刷는 몹시 돈이 들어 힘이 벅차서 謄寫版으로 50p 1,000部를 印刷하여 前記 展示會때 實費로 이것을 觀覽者에게 나누었다. 그러나 約 900部가 그대로 남었다. 그래서 殘部에 對한 窮理를 하다가 藝術新聞社에 주어서 適當한 곳에 寄贈해 달라고 맡기었으나 外上으로 해온 印刷代金을 淸算하는 問題가 컸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거리에서 購入했던 岩波講座哲學 100册 한 秩이 마침 國立圖書館에 없기에 朴奉石 先生任에게 이것을 國立圖書館에 내 놓고 印刷代金을 淸算해 받었던 일이 있다. 그 책은 지금 國立圖書館書庫에 나란히서 있을 것이다.

### 法律圖書移管問題

1946年 軍政法令 第78號(?)로서 國立圖書館이 所藏하고있는 全部의 法律圖書와 法律圖書購入費를 法制圖書館으로 移管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法制處職員이 國立圖書館에 와서 圖書를 내 노라는 것이다. 常識으로 있을 수 없는 問題가 生겼다. 軍政時代이어서 軍政法令이면 고만이다. 그러나 國立圖書館의 全職員은 決死的으로 이를 反對하기로 決定하고 部署를 定하고 여러 날을 圖書館에서 徹夜하면서 圖書를 防衛하면서 法令이 撤回되도록 努力하였다. 各言論機關, 社會團體를 찾아다니며 呼訴하였고 明洞入口에서 反對文에 署名을 받는 署名運動도 하였다. 軍政에 參與하고 있던 故元一漢氏를 비롯하여 韓國을 理解하는 外國人들을 찾아 다녔다. 故元一漢氏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自己도 軍政長官에게 이 法의 施行을 挽留하겠다고 約束을 하였고 新聞에서도 反對하는 漫畵까지 揭載하여 주었다. 國立圖書館員의 熱意는 마침내 이 軍政法令은 施行하지 않겠다는 軍政長官의 特別談話가 放送으로 發表되어 國立圖書館의 法律圖書가 移管되지 않고 그대로 保管하게 되었다.

### 演 劇

當時의 國立圖書館員들은 演劇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開館記念日에는 여러 가지 餘興에다 프로의 主가 되는 劇이 上演되었다. 記念日을 앞둔 約 一個月前에는 프로가 定해지고 즐거운 中에 準備에 바쁘다. 記念日 行事中 演劇이 主가 된다. 脚本이 마련되고 出演할 所謂俳優들도 定해지면 每日 저녁 늦도록 熱心히 演習을 하였다. 記念日 저녁이 되면 舞臺가 만드러 진다. 銅羅가 울리고 電氣가 꺼지면서 幕이 올른다. 舞臺裝置도 그럴듯 할뿐 아니라 扮裝도 제법이다. 色色이 照明도 빛우어저서 觀劇하는 家族들과 館員들은 놀래고 演劇이 끝나면 幕이 내려지자 眞心으로 拍手를 처준다. 그러고 나면 다른 豫定되어 있는 프로가 繼續되고 宴會가 베푸러지곤 하였다.

나는 文獻蒐集을 하면서 곁들이로 演劇圖書館의 할 일의 하나인 將次 演劇史의 資料가 되는 것을 물으고저 各劇團事務室을 찾아 다니며 創立公演以後의 上演한 演劇의 脚本, 프로그램, 포스터 招待券等을 얻어다 保管하였다. 이것들이 어찌 되어 있는지?

當時에는 서울劇場協會라는 곳에서 通鑑이란 것을 發하였다. 이 通鑑은 서울 市內의 어느 劇場이고 無料로 入場할 수 있는 파스이었는데 國立圖書館의 幹部는 이것이 發行되었다.

### 講習會

解放後 첫 講習會가 國立圖書館에서 開催되었었다. 지금의 實習講習會 비슷한 것이나 달르고 또한 追憶되는 일은 地方에서 온 受講者가 合宿하였던 일이다. 市內 圖書館의 受講者는 自然히 除外되었으나 地方으로 부터 上京한 受講者들은 지금 三淸洞에 있는 學術院자리에서 合宿하였는데 國立圖書館의 몇 사람은 義務的으로 함께 合宿하였었다. 合宿함으로서 얻은 成果로는 各地方에서 같은 目的의 事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저녁 食事後 서로의 實情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中에 서로 배울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는點과 數日間 宿食을 함께 함으로서 서로의 友誼가 急히 두텁게 될 수 있었다는 點이었다고 하겠다.

昨年度圖協事業의 하나인 分類表를編纂하기 爲하여 分類分科委員들이 같은 委員이었던 故 金奉律氏宅에서 여름 한철을 甚히 苦生하였었는데 그곳이 바로 講習會受講者들이 合宿하던 建物이었던 일을 생각하니 다시금 故金氏의 冥福을 비는 마음 懇切하다.

### 故崔秉宇氏와 圖書館

韓國日報特派員으로 金門島에 갔다가 作故하신 故崔秉宇氏가 1946年 여름 國立圖書館에 처음 나타났다. 自己 紹介로서 外務部에서 勤務한다고 하였고 "獨島"가 우리 나라 領土라는 史實을 文獻에서 調査하겠다는 것이었다. 書庫에 함께 들어가서 이것 저것 文獻을 두젔다. 故崔氏는 그後도 자주 찾아와 주었고 따라서 가까워 젔으며 來往이 잦았다. 알고 보니 外務部文書課長이었다. 故崔氏는 外務部圖書室을 꾸며보겠다고 몹시 熱心이어서 조금한 圖書室을 만드렀는데 外務部圖書室의 歷史는 이때 부터인 것이다. 圖協評議員으로 選出되었던 故崔氏는 駐日代表部로 轉勤하게 된 후 消息이 없더니 6.25로 釜山避難中 韓國銀行圖書室에서 偶然히 再逢하였다. 韓國銀行文書局에 勤務한다고 하였다. 그後 休戰會談이 開催되자 朝鮮日報特派員으로 板門店에서 休戰會談을 報道하여 주었다. 金門島로 떠나기 數日前 半島호텔 앞 路上에서 만난것이 最後였으니 人生의 虛無함을 새삼 느낀다.

韓國日報社에서는 故崔氏를 記念하여 아담한 故崔秉宇記念圖書館을 設立하였고 故崔氏의 未亡人은 美國하바드大學에 있는 燕京學會 東洋部에 가 계시다는 消息을 듯고 있으니 故崔氏는 言論人이 었으나 圖書館과도 깊은 因緣이 있는 분일뿐만 아니라 圖書館의 發展을 바라던 분인 同時에 圖書館을 참으로 애껴 주시는 분의 한 사람이었다.

(筆者 韓國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

## 1965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國의 團體 및 個人會員께 부탁 드립니다. 第11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1965年度 事業은 國庫補助事業 6個 自體事業 8個, 合하여 14個種의 事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많은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여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고저하는 共同 目標를 이룩 할수 있도록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의 어려운 事情이 있을줄 思料되오나 早速한 期日內에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